

## 보정(普亭) 김정희(金正會)의 금강산 유람기 일고찰\*

박종훈 \*\*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김정희의 일생과 금강산 유람 일람
3. 김정희의 금강산 유람기의 특징적 일면
4. 나가는 말

---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고전번역전공) 부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김정희의 금강산 유람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것이다. 김정희는 일제치하였던 1941년 금강산을 유람했다. 그의 문집인 『연연당문고』에는 금강산 유람과 관련해 총 24수의 한시와 총 4,078자인 「동정록」이라는 유기(遊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유기(遊記)와 관련해 진경(眞景)과 진사(眞事)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었고 그 시발점에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가 자리 잡고 있다. 김정희의 「동정록」 또한 그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가 자신의 유람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창협(金昌協)의 작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는 금강산 유람을 자신이 평소 익혔던 유가적 사유를 체험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실제 유람하는 과정에서 공자와 맹자 그리고 주희와 정호의 언급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언급을 마주한 상황에 결부시켰다. 이를 통해 유가적 사유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았다.

김정희에게 금강산은 당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공간이기도 했다. 『논어』 「미자」에 보이는 악관(樂官) 양(陽)과 양(襄)이나 노중련 그리고 백이숙제 등을 소환한 바 있는데, 이는 당대 현실에 대한 참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금강산의 표상도 통시적 관점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주제어** : 보정(普亭) 김정희(金正會), 연연당문고(淵淵堂文稿), 동정록(東征錄), 금강산 유람, 금강산의 표상, 일제치하의 유람기,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東遊記).

## 1. 들어가는 말

금강산과 관련해 “고려국에서 태어나 한 번 금강산을 보았으면 좋겠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라고 말이 있다. 이처럼 금강산은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인식되어 조선시대 수많은 지식인이 유람을 열망하거나 실제 유람을 단행했다. 그 유람의 여정과 풍경 및 그 감흥을 본격적인 유기(遊記) 작품으로 남긴 문인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영향 하에 지금까지 수많은 금강산 관련 유기들이 소개되었고 그에 따라 금강산 유기에 대한 연구 성과도 일정 정도 축적되었다. 육재용은 유기 총 26편,<sup>1)</sup> 김혈조는 21편,<sup>2)</sup> 심경호는 44명의 작품을 거론한 바 있다.<sup>3)</sup>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작품에 대해 접근했고 통시적 혹은 공시적 관점에서 금강산의 의미를 밝혀내었다.<sup>4)</sup> 그러나 이미 학계에 알려진 금강산 유기 외에도 아직 소개되지 않은 유기 작품이 적지 않게 발굴되는 성과도 지속되고 있다.<sup>5)</sup> 이처럼 금강산 유기 작품의 발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본고에서는 금강산 유람과 관련된 선행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김정희의 금강산 유람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희는 1941년 일제치하라는 상황에서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발하여 한성을 경유하고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한 후 귀향했다. 이 과정을 한시 총 24수와 「동정록

1) 육재용, 「산수유람록에 나타난 先人들의 관광의식」, 『관광연구』 25권,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2) 김혈조, 「문학을 통해 본 금강산」, 『한문학보』 1권, 우리한문학회, 1999, 393-394면.

3) 심경호, 「조선후기 문인의 동류 체험과 한시」, 『한국한시연구』 6권, 한국한시학회, 1998, 55면.

4) 몇 편의 논문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혜선, 「17·8세기 金剛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집, 관악어문연구, 1992; 이종목, 「조선 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6권, 한국한시학회, 1998; 이경수, 「16세기 금강산 기행문의 작자와 저술배경」, 『국문학연구』 4권, 국문학회, 2000; 박은정, 「遊山記로 보는 僧의 삶과 소수자적 실상-금강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54권, 온지학회, 2018.

5) 최근에 발굴된 금강산 유기와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종훈, 「后山 鄭胤永의 『瀛嶽錄』 一考察」, 『온지논총』 67집, 온지학회, 2021; 鄭胤永, 『천하제일명산 금강산 유람기-瀛嶽錄』, 박종훈 譯, 수류화개, 2021; 박종훈, 「일제 강점기 華東 金漢翼의 금강산 유람」, 『국제언어문학』 51호, 국제언어문학회, 2022.

《東征錄》이라는 글에 담았다.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금강산 유람의 편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일제치하라는 상황 속에서 금강산의 표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선 김정희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 김정희의 유람 기록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더불어 김정희에게 금강산 유람이 갖는 의미와 일제치하라는 상황 속에서 금강산이 갖는 또 다른 표상에도 접근해보고자 한다. 동일시기 금강산 유기와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더 많은 유기 작품의 발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김정희의 기록만을 토대로 논의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임을 미리 밝힌다.

## 2. 김정희의 일생과 금강산 유람 일람

### 2.1. 김정희의 생애

김정희(金正會, 1903~1970)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립(中立), 호는 보정(普亭)이다. 1903년 10월 28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道山里)에서 출생했으며, 종조부 항재(恒齋) 김순묵(金純默)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고 약관의 나이에 사서오경과 제자백가를 두루 섭렵했다. 시골에 처박힌 유학자이기를 거부하고 광복을 도모하기 위해 상경(上京)했다.

1929년(27세) 상경하여 실용적인 북학(北學)을 공부하면서 실학을 추구하고 여러 석학과도 교유했다. 이때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의 문하에서 글씨와 그림을 익혔다.

1940년(38세) 태평양 전쟁 중, 유학(儒學)의 도(道)를 진작시키기 위해 순회강연을 하라고 일제에서 요청했다. 김정희는 “저들의 망함이 멀지 않았으니, 나는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음해인 1941년(39세) 5월에 벗들과 금강산을 유람했다.

일제가 임명한 전라북도 지사가 고창을 순행하려고 하면서 김정희를 보기 원했다. 그러자 김정희는 곧바로 순창(淳昌)의 산속으로 들어가

월담(月潭) 김재석(金載石) 공과 수일을 강론하고 돌아왔다.

1941년(39세) 일제가 우리나라 유림(儒林)의 영수(領袖)를 초정하여 일제의 명승지를 유람하게 했다. 어떤 이가 일제 유람을 힐난하자, 김정희는 “나는 우리 종조(從祖) 항재(恒齋) 공의 ‘천만의 까마귀와 여우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있음을 잊지 말라.[千萬鳥狐中, 勿忘有己.]’는 가르침을 평소에 지키고 있네. 또한 장차 저들의 개화(開化)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니, 비록 내가 열 번 저들의 나라를 유람하더라도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했고 또한 “내가 어찌 매인 표주박이라, 그 풍경을 보고 그 민속과 문화수준을 살펴려고 한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김정희는 가는 곳마다 시를 읊조렸는데, 풍물과 풍경만을 묘사하면서 ‘해도(海島)’ 등의 글자를 많이 사용했다. 일제의 세토 내이카이[瀬戸内海]를 구경할 때, “해국의 풍광 중에 가장 최고이구나.[海國風光最勝頭]”라는 시구를 지었는데,<sup>6)</sup> 수행하던 왜관(倭官)이 ‘해(海)’자를 ‘내(內)’자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희는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왜관(倭官) 또한 문학을 알고 있을 터이니, 어찌 아부하는 말을 쓰겠습니까.”라고 정색을 하며 단호히 거절했고 왜관도 거듭 요청하지 않았다. 이때 지은 기행시(紀行詩)가 동아일보(東亞日報)에 실렸는데, 국내의 여러 유학자가 모두 음송하면서 김정희의 꺾이지 않고 아부하지 않은 기개를 칭송한 바 있다.<sup>7)</sup>

1945년(43세) 광복이 되자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미 저들이 필시 곧 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 건국의 일을 도모해야겠다.”라고 하고서는 상경했다. 10월 상경하여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근촌(芹村) 백관수(白寬洙),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 등과 교류하며 자신의 뜻을 펴보려고 했으며, 종친들과 김구(金九)의 귀국환영회를 조직하기도 했다.<sup>8)</sup>

6) 이 구절은 『淵淵堂文稿』 권1에 실린 「泛舟嵐山下【京都附近】」라는 작품의 1구이다. 전체 작품은 다음과 같다. “海國風光最勝頭, 雙山對翠一江頭. 扁舟滿載斜陽去, 岳色波聲萬古愁.”

7) 일제에 갔을 때 지은 작품으로 『연연당문고』 권1에는 「辛巳秋往日本吟」, 「泛舟嵐山下【京都附近】」, 「東京客館暫見丙兒」, 「奈良縣逢故鄉人【柳津】」, 「九日舟中作【自日本歸】」 5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8) 『연연당문고』 권4에는 「白凡先生歡迎文」이라는 시작품과 권10에는 「白凡金九傳」

그러나 좌파(左派)니 우파(右派)니 하는 의견이 분분이 가리는 상황을 직면하고는 통곡하며 며칠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국론이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나라가 두 동강나고 동족상잔의 일이 곧 발생할 것이다. 어찌 이를 차마 볼 수 있으랴, 차라리 은둔하겠다.”라고 한 바 있다. 또한 귀향해서는 집안의 노비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지금 다행히 하늘이 광복을 맞이하게 해 주었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니 어찌 상하의 계급이 있겠는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가시게.”라고 하고서는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각자 떠나게 했다. 그리고는 10월에 자신도 가산(家産)을 버리고 배 한 척을 사서는 서해의 왕도(旺島)로 들어갔다. 다음해 겨울에 조모상(祖母喪)을 당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한성의 친구들이 자주 불렀지만 모두 사절한 채 응하지 않았다. 1970년 10월 11일 향년 68세로 별세했다.<sup>9)</sup>

김정희는 일제치하, 광복, 남북분단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관통했다.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절개를 지켜나갔는데, 그러한 의식의 일단이 금강산 관련 유기에도 담겨 있다.

## 2.2. 금강산 유람 기록 일람

김정희의 유집으로는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의 동호계(同好契)와 김영표(金永杓)가 1978년 발행한 『연연당문고(淵淵堂文稿)』가 있는데, 권1부터 권10, 부록까지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희의 금강산 유람과 관련된 기록으로 『연연당문고』 권1에는 시, 권4에는 유기인 「동정록(東征錄)」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오언율시 2수, 칠언절구 13수, 칠언율수 9수 도합 24수의 시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금강산 유람을 시작하기 위해 정음에서 출발하고 유람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전 과정이 짙막한 시 속에 담겨 있다.

---

이 실려 있다.

9) 김정희와 관련된 이상의 기록은 『연연당문고』 부록에 수록된 「家狀」과 「行狀」, 「墓碣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천하제일의 금강산	天下第一金剛
명승지가 모두 우리나라에 있구나.	名勝盡在東國
앞뒤 봉우리는 모두 흰 옥인 듯	白玉前峰後峰
위아래 폭포는 모두 맑은 구슬인 듯.	明珠上瀑下瀑
부처의 세계요 신선의 공간이니	佛亦可仙亦宜
귀신이 깎고 새겨 놓은 듯.	神如剗鬼如刻
상평은 나막신 신고 오래 노닌 것이	尙平履子長遊
다만 강수와 회수 오악뿐이었다오.	只在江淮五嶽 <sup>10)</sup>

표훈사(表訓寺)에서 금강산의 전경을 바로보고 지은 작품이다. 일만 이천 봉우리를 흰 옥에 견주었고 폭포는 마치 진주가 쏟아지는 듯하다고 묘사하면서, 이곳은 귀신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찬탄을 자아냈다. 마지막 구절은 후한(後漢) 때의 은사로 자평(子平) 상장(尙長)이 강수와 회수 및 오악에서 노닌 것에 견주면서,<sup>11)</sup> 자신의 이번 유람이 이보다 낫다고 자부한 대목이다. 수록된 시작품은 위의 작품처럼 풍경과 그에 대한 자신의 흥취를 거론한 것이 대부분이다.

권4에 실린 「동정록」은 금강산 유람의 전 과정을 기록한 글로, 글자수는 총 4,078자이다.

내가 어릴 적에 일과(日課)로 「억금강기(憶金剛記)」라는 글을 지었었다. 지금 기억나는 그 글 속의 두어 구절은 “금강산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오르면 오를 수 있다. 나는 장차 천하의 책을 읽고 천하의 이치를 궁구할 것이니, 그러한 뒤에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비로봉(毗盧峯)에 오른다고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어느새 흘러 한순간 서른하루이 되었고 천하도 크게 어지러워 살아가는 것이 축도(蜀道)를 오르는 것보다 어렵게 되었다. 이날 유람을 도모하고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금강산은 마치 하늘 위에 있어 끝내 오를 수 없다.’라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10) 권1 「表訓寺望全景」

11) 상장은 자녀들을 모두 시집 장가보내고 나서는 “앞으로 내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고는 집안일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뜻이 맞는 벗들과 오악(五嶽) 등 명산을 유람하며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상장열전(尙長列傳)」에 보인다.

이에 신사년(辛巳年, 1941) 중하(仲夏) 5월에 마침내 동쪽으로 금강산을 유람할 계획을 세웠다. 함께 떠난 사람은 당제(堂弟) 김민회(金玟會), 둘째 동생 김장회(金章會), 벗 류태운(柳泰胤)이었다. 종제(從叔) 김재학(金在鶴) 씨와 강봉영(姜琇永) 군은 미리 약속하고서 정읍(井邑)에 머물며 기다렸으니, 나를 포함 총 6명이 길을 나섰다.<sup>12)</sup>

「동정록」 가장 앞부분의 글이다. 어릴 적부터 금강산 유람을 열망했는데, 결행하지 못하다가 서른아홉 되던 1941년에 금강산 유람을 떠나게 되었다. 일단 금강산 유람은 젊은 시절의 바람이기도 했지만, 인용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하가 어지러워 세상살이가 촉도(蜀道)를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으니, 태평양 전쟁과 맞물린 일제의 강요와 탄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한 의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자신을 포함한 김민회, 김장회, 류태운, 김재학, 강봉영 총 6인이 동행했으며, 실제 금강산 유람을 하는 과정에서는 길잡이 노승(老僧)도 함께 했다.

「동정록」에 실린 유람의 전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월 6일 : 고향

5월 7일 : 정읍역(井邑驛) → 경성(京城)

5월 8일 : 철원(鐵原) → 단발령(斷髮嶺) → 내금강역(內金剛驛)

5월 9일 : 장안사(長安寺) → 명경대(明鏡臺) → 금강문(金剛門) → 연화담(蓮花潭) → 수렴폭(垂簾瀑) → 망군대(望軍臺) → 표훈사(表訓寺) → 만폭동(萬瀑洞) → 사선대(四仙臺) → 마가연(摩訶衍)

5월 10일 : 비로봉(毗盧峯) → 구룡연(九龍淵) → 옥류동(玉流洞) → 신계사(神溪寺) → 온정리(溫井里)

5월 11일 : 고성(高城) → 해금강(海金剛) → 삼일포(三日浦) → 사선대(四仙臺) → 만물상(萬物相)

12) 권4 「동정록」 “余少日課作憶金剛記，今記得記中數句語曰，金剛不在天上，行則到耳。吾將讀天下之書，窮天下之理，登毘盧第一峰，亦未晚也。荏苒歲月，忽爾三十有九，且天下大亂，行路艱於蜀道，不於此日圖之出，所謂金剛如在天上，終不可往矣。歲辛巳仲夏，遂定東征計。所與偕者，堂弟玟會次弟章會柳友泰胤也。從叔在鶴氏姜君琇永有前約，留待于井邑，凡六人也。以是月七日庚辰，發程，所齋無他物，唯韻考一篇而已。乘車井邑驛，天風拂袂，神思飛越，已在海山間矣。乘暮入京城。”

5월 12일 : 외금강역(外金剛驛) → 총석정(叢石亭) → 삼방협(三防峽)

5월 13일 : 경성(京城)

5월 14일 : 고향

1941년 5월 6일 고향을 출발하여 5월 14일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총 9일 동안의 여정이다. 단발령에서 시작하여 내외금강산을 걸쳐 동해까지 유람했는데, 일반적인 금강산 유기의 여정과 동일하다. 오가며 경성에서 이틀을 머물렀고 동해에서 이틀을 묵었기에, 실제 금강산 유람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 사흘인 셈이다. 금강산 유람은 도보로 진행했지만, 금강산을 오가는 길에는 전거(電車)와 자동차를 이용했다.

### 3. 김정희의 금강산 유람기의 특징적 일면

김정희의 「동정록」은 여타의 금강산 유기 기록처럼, 노정과 풍경에 대한 언급 및 그에 대한 감흥이 주를 이룬다. 풍경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나 노정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인 금강산 유기와 큰 차이가 없기에, 본 장에서는 김정희의 「동정록」만의 특징적 일면을 살펴면서, 전체 금강산 유람기 속에서의 「동정록」의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3.1.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 수용 양상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유기와 관련해 진경(眞景)과 진사(眞事)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실제 자신의 작품에서 이를 구현한 바 있다.<sup>13)</sup> 이후 적지 않은 문인들이 이러한 영향 하에서 자신의 유기를 완성했는데, 김정희도 김창협의 「동유기(東遊記)」를 적극 수용했다.

김정희 「동정록」: 暫入三日浦。波甚澄泓，周圍可十許里，外列三十六峰，映帶左右。中有小島，兀然而起，其上曰四仙臺。世傳四仙嘗遍遊關東諸勝，至此三日樂

13) 김창협은 1671년 8월 금강산을 유람하고 「동유기(東遊記)」(『농암집(農巖集)』 권 23)와 「동정부(東征賦)」(『농암집』 권1)를 지은 바 있다.

而忘返, 故浦與臺, 俱以是得名云爾. 車夫催歸, 竟不作三日之遊, 得無爲四仙所笑乎.

김창협 「동유록」: 往觀三日浦, 周遭可十餘里. 外有三十六峰環之, 中則小島兀然, 朱薨出其上, 曰四仙亭. 四仙者, 世傳新羅時人, 嘗徧游關東諸名勝, 至此三日忘歸, 浦與亭, 皆以是得名云. ……行路卒卒, 竟不能作三日留, 得無爲四仙所笑乎.

삼일포(三日浦)에 대한 김정희와 김창협의 기록이다. 삼일포나 사선에 대한 풍경 및 유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유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김정희는 마지막 대목에서 “운진사가 재촉하는 바람에 사흘 동안 놀아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으니, 사선에게 비웃음 받지 않겠는가.”라 했는데, 이 표현 역시 김창협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물론 유람의 시대가 달라 ‘행로(行路)’가 ‘차부(車夫)’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처럼 「동정록」은 김창협의 「동유록」을 연상시키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다음의 구절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1-1. 김정희 「동정록」: 洞有時乎開闔, 路有時乎斷續, 溪流之縈迴曲折, 側行詭出者, 窮其變而極其奇矣. 行未幾, 得一潭, 廣可數畝, 泓渟黛綠, 名曰蓮花潭.

1-2. 김창협 「동유록」: 洞不勝其開闔, 而溪水之縈回曲折, 側行詭出者, 又不勝窮其變矣. 凡行三四里, 得一潭, 廣可數畝, 渟泓深綠, 鑑人毛髮.

2-1. 김정희 「동정록」: 石皆素練, 無一瑕玷. 溪水自毗盧峯以下, 衆壑交流, 奔趨爭先, 咸會于此. 洞石之磊落磅礴者, 不知幾千萬層. 有臥者, 有立者, 有欹者, 有白者, 有注者, 又有呀然而坼者, 穹然而培者, 飛流向絕壁直下, 遇石輒奔騰擊搏, 雷吼雪噴, 隨石之形, 以盡其變. 然後始拗怒徐行, 爲川爲溪, 爲瀨爲潭, 千變而萬化. 蓋瀑一變而爲潭, 潭又一變爲瀑, 瀑長自一二丈至五六丈, 潭廣自一二畝至六七畝. 幅幅活盡, 步步改觀, 晶熒閃爍, 不可定視. ……向暮投宿于摩訶衍, 背擁衆香諸城, 前則穴望白雲諸峰, 環列如屏幃.

2-2. 김창협 「동유록」: 石皆白色如玉, 而溪水自毗盧峰以下, 衆壑交流, 奔趨爭先, 咸會于是. 洞石之嶽崎磊落, 槎牙齷齪者, 又離列錯置, 以與水相爭. 水遇石必奔騰擊薄, 以盡其變, 然後始拗怒徐行, 爲平川爲淺瀨, 間遇懸崖絕壁 又落而爲

瀑. 瀑下又滙而爲潭, 瀑長自六七丈, 至一二丈. 潭廣自七八畝, 至三數畝. 其名爲龜爲船, 爲靑龍黑龍, 爲凝碧, 爲眞珠, 爲靑琉璃黃琉璃, 而碧霞最奇麗, 火龍最雄大, 此其大略也. 其詳則余無得以窮焉. 自火龍行一里, 爲摩訶衍, 菴背, 擁衆香城, 若負屐前, 則穴望曇無竭諸峰, 環列如屏障, 信名藍也. 庭除, 杉檜鬱然, 中有一樹, 幹直皮赤, 葉類杉, 古來相傳爲桂, 非也. 飯後散步中庭, 仰見衆香諸峰, 皆作爛銀色, 晶熒閃爍, 不可定視.

김정희는 실제 자신의 유람을 중심에 두고 김창협의 언급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실제 유람을 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하고 김창협 기록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했다. 또한 앞뒤로 몇 글자를 바꾸었지만, 의미상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김창협 「동유기」를 적극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회를 서술한 부분에서도 김창협 언급을 그대로 수용했다.

김정희 「동정록」: 始覺半生所見, 不過土堆耳石塊耳.

김창협 「동유록」: 昔明人吳廷簡見黃山, 以爲半生所見, 皆土堆石塊耳.

김정희 「동정록」: 向吾登毘盧, 以謂半生所見, 皆土堆石塊, 今又覺半生所見, 皆涓流蹄涔.

김창협 「동유록」: 向吾見金剛, 以爲半生所見, 皆土堆石塊, 今又覺半生所見, 皆涓流蹄涔耳.

위 인용문은 금강산을 둘러보니, 자신이 평생 보았던 산들이 모두 흙덩이와 돌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대목이다. 아래 인용문은 동해를 보고서 자신이 평생 본 물이 모두 작은 개울이나 마소의 발자국에 고인 물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는 구절이다. 모두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하고 느낌 정회를 서술한 대목인데, 김정희가 김창협 언급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을 쉽게 살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용 양상을 살필 수 있는 단편적인 언급은 수없이 많다. 몇 구절에 걸쳐 김정희가 김창협 기록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

목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김창협 「동유록」	김정희 「동정록」
此心已飄然在海山間矣.	神思飛越, 已在海山間矣.
朝夕盤飧, 皆峽中佳味.	夕飯兼酒盤餐, 皆峽中佳味.
約行十數里, 路忽闢若馳, 道左右, 杉檜挺立成行.	溪流與路相終始, 左右松檜, 挺立成行.
結構宏麗, 金碧爛然.	宏麗傑雄, 金碧燦爛.
寺據平地, 四圍回合, 無所覩見. 唯東北數峰, 峻拔聳立, 狀欲壓人. 問其名, 地藏觀音普賢也.	寺在平地, 四圍山合, 惟東北數峰, 峻拔聳立, 曰釋迦, 曰地藏, 曰長庚也.
拔地劍立, 峯兀可畏.	勢如劍刃, 峯兀可畏.
璀璨炫晃, 奪人目睛, 余不覺絕倒叫奇.	璀璨炫晃, 奪人目睛, 自不覺絕倒叫奇.
皆欹崖斷岸, 往往無所取道.	往往無所取路. 登十許里, 欹崖斷岸
世所稱萬二千峰者, 一一呈露如掌中.	世所稱一萬二千峰者, 一一呈露如掌中.
皆行深谷中, 山勢犬牙相互, 樹木森蔭蔽虧, 半日行, 不見天日.	行深谷中, 山勢犬牙相互, 林木森陰蔽雲日.
楊蓬萊所書蓬萊楓嶽元化洞天八大字, 刻在石面, 龍拏猊攢, 幾欲與嶽勢爭雄.	有楊蓬萊所書蓬萊楓嶽元化洞天八大字刻在石面. 龍飛鳳翔, 與嶽勢爭奇并雄矣.
或露半面, 或見一髮.	或露半面, 或見一髮.
復有香藤翠蔓, 交綴蒙絡, 披拂下垂.	蒼藤碧蔓, 蒙絡披拂,

정운영(鄭胤永, 1833~1898)은 1897년 금강산을 유람하고 『영악록(瀛嶽錄)]을 엮은 바 있다. 이 『영악록』에서도 김창협의 「동유기」는 끊임없이 소환되었고 실제 「동유기」의 구절들을 그대로 옮겨오기도 했다.<sup>14)</sup> 김한익(金漢翼, 1863~1944)도 1924년 금강산을 유람하고 「금강유록(金剛遊錄)」을 남긴 바 있는데, 김한익은 금강산 유람을 시작하

14) 박종훈, 「后山 鄭胤永의 『瀛嶽錄』 一考察」, 『온지논총』 67집, 온지학회, 2021, 121-124면.

면서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 한 편을 가지고 갔다고 직접 언급했다.<sup>15)</sup>

또한 윤재환은 금강산 유람과 관련된 논문에서 “조선전기의 유기는 도학적(道學的) 측면에서 선경(仙境)을 추구하면서 도리(道理)를 체득하려는 의지가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어, 성리학적 사유가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이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었는데, 그 시발점에 김창협과 김창흡(金昌翕)이 있다. 이들은 진경(眞境)과 진사(眞事)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금강산에 대한 인식과 유기의 경향을 바꾸었다. 이후 이들의 문인인 이하진(李夏鎭)의 「금강도로기(金剛途路記)」나 이서(李澍)의 「동유록(東遊錄)」 등도 그 경향을 그대로 잇고 있다.”라고 김창협의 「동유기」를 평가한 바 있다.<sup>16)</sup> 이해보자면, 김창협의 「동유기」는 이후 금강산 유람과 관련된 기록의 한 전범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영향 하에서 김정희 역시 자신의 유람 체험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김창협의 「동유기」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희는 「동정록」 가장 앞부분에서 “어릴 적에 일과(日課)로 「억금강기(憶金剛記)」라는 글을 지었었다.[余少日課作憶金剛記]”라고 한 바 있다. 「억금강기」라는 작품은 어린 시절 읽었던 금강기를 회억하면서 지은 것인데, 실제 「동정록」에서 김창협의 「동유기」를 적극 수용한 것을 보면, 이 ‘억금강기’가 김창협의 「동유기」일 개연성도 충분하다 하겠다.

### 3.2. 유가(儒家) 사유 체험의 장

금강산 유기는 대부분 유자들의 기록이다. 이로 인해 금강산 유람을 통해 유가적 사유를 되새김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 김정희 역시 금강산 유람을 유가적 사유를 체험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비로소 반평생 본 것이 흙덩이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5) 박중훈, 「일제 강점기 華東 金漢翼의 금강산 유람」, 『국제언어문학』 51호, 국제언어학회, 2022, 124-130면.

16) 윤재환, 「梅山과 玉洞의 금강산 기행시문 비교 연구」, 『동양학』 38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105-106면.

공자(孔子)는 “동산(東山)에 올라보니 노(魯)나라가 작다는 것을 알겠고 태산(泰山)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태산이 그리 높단 말인가, 천하가 그리 작단 말인가. 처한 곳이 더욱 높아질수록 보는 것 또한 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형세 상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sup>17)</sup>

5월 11일 비로봉(毗盧峰)에 올라 느낀 감회를 서술한 대목이다. 우선 비로봉에 올라 바라보니, 자신이 반평생 바라본 산은 흙덩이나 돌덩이에 불과했다 했는데, 이는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東遊記)』에서 언급한 감회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어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보이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정희(金正喜)는 비로봉에 올라보고 나서야 공자가 말한 의미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고 이어 상황에 따라 그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맹자』의 이 구절에 대해 주희(朱熹)가 주석에서 “있는 곳이 높아질수록 그 아래에 보이는 것은 더욱 작아지고, 이미 본 것이 클수록 작은 것은 보잘 것 없다.[此言所處益高, 則其視下益小, 所見既大, 則其小者不足觀也.]”라고 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공자와 맹자 및 주희의 말까지 언급하면서, 평소 익혔던 한 단계라도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유가적 인식론을 실제로 체험한 셈이다.

그대는 성인(聖人)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듣지 못했는가. 한 모퉁이를 들어 세 모퉁이를 돌아보지 않으면 다시 가르치지 않았다네. 산수를 유람하는 것 또한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를 내 가슴 속에 솟아 있게 한다면, 하나의 바위로도 만 개의 바위를 알 수가 있으며, 하나의 물줄기로도 만 줄기 물길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네. 그렇기에 눈이 밝은 자는 하나의 깃털만을 보고서도 그 상서로움이 되는 것을 알고 귀가 밝은 자는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또한 청상(淸商)의 오묘한 곡조가 뒹을 안다네. 그러니 어찌 기이함과 험난함을 다 유람하는데, 수많은 날들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는가.……우뚝하게 솟은 것이 내가 산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인(仁)을 더욱 도답게 할 수 있고 넘실거리며 흐르는 것이 내가 물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지(知)를 더욱 두

17) 권4 「동정록」 5월 10일 “始覺半生所見, 不過土堆耳石塊耳. 孔子曰, 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 泰山高歟, 天下小歟. 所處益高, 則所見亦隨而變, 其勢不得不然耳.”

루 할 수 있으니, 어찌 하나의 사물에 얽매어 정신을 다 소진해 지친 이후에야 마야흐로 승경을 유람했다고 말하겠는가.<sup>18)</sup>

5월 12일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에 금강산과 동해를 다 유람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힐난하는 사람에게, 김정희가 자신의 소견을 밝힌 대목이다. 우선 혹자의 힐난에 대해 『논어』 「술이(述而)」에 보이는 “한 모퉁이를 들어주어 세 모퉁이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다시 가르치지 않았다.[舉一隅，不以三隅反，則不復也.]”라는 공자의 언급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유람 또한 모든 전경을 다 본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하나의 산봉우리나 물줄기만으로도 나머지 부분까지 미루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어 이를 뒷받침해 줄 있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논어』 「옹야(雍也)」에 보이는 “공자가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니, 지혜로운 자는 동(動)하고 어진 자는 고요하며, 지혜로운 자는 즐겁고 어진 자는 장수한다.[知者樂水，仁者樂山。知者動，仁者靜，知者樂，仁者壽.]’라고 했다.”라는 대목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산수 유람의 최종 목적이 인지(仁知)에 대한 탐색과 확장임을 밝혔다. 이러한 인식은 공자의 사유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실제 유람을 통해 공자의 사유를 직간접으로 체험한 것이라 하겠다.<sup>19)</sup>

결국 김정희의 유람을 참된 유람이라 할 수 없다는 힐난에 대해 공자의 언급만으로 답변한 셈이다. 이 또한 평소 익혔던 유가적 사유를 실제 체험에 결부시킨 것으로, 유람을 통해 유가적 사유를 더욱 견고하게 다진 셈이다.

18) 권4 「동정록」 5월 12일 “子不聞聖人教人之術乎。舉一隅不以三隅反，則不復也。山水遊觀，亦何以異於此。使金剛之萬二千峰，立於吾胸中，則一石可以知萬石，一水可以推萬水，故明者見一羽，可知其爲瑞祥，聰者聞爆聲，而亦知其爲清商之妙曲，何必窮奇極險，費得許多日也。……峨然而峙者，吾知其爲山，而仁可益厚，浩然而流者，吾知其爲水，而知可益周，奚滯於一物，極精疲神，然後方云遊觀之勝也哉。”

19) 이이(李珣)도 『울곡전서(栗谷全書)』 권13 「탁열정기(濯熱亭記)」에서 “산수는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이 정자에 오른 사람이 산의 높음을 보고 물의 맑음을 보고서 근본을 심고 목은 때를 씻는다면 인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고 지를 더욱 두루 할 수 있을 것이다.[山水能使人移情，登斯亭者，見山之高，見水之清，植本洗垢，仁可益厚，知可益周.]”라고 한 바 있다.

잠시 표훈사에 머물며 쉬는데, 승도(僧徒) 7,8인이 모두 흰 납의(納衣)에 검은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목에는 백팔 염주를 걸고 있었고 손에도 염주를 갖고 있었다. 말하고 웃는 것에 구차함이 없었고 행동거지도 여유롭고 아정(雅正)했다. 이천(伊川) 정이(程頤) 선생이 일찍이 절에 들어와서 “삼대(三代)의 위의(威儀)가 모두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한 바 있다. 내가 이 표훈사에 와 보고서는, 더욱 우리 유도(儒道)의 규모가 해이해져 도리어 저 불도(佛徒)들에게 불만한 위기가 있는 것만 못하게 된 것에 탄식을 마다하지 않았다.<sup>20)</sup>

표훈사(表訓寺)에서의 감회를 기록한 부분이다. 표훈사 중들의 모습과 행동거지를 언급하면서 송(宋)나라 정이(程頤)의 언급을 환기했다. 이 구절은 『이정외서(二程外書)』 권12에서 “명도(明道) 선생이 일찍이 사찰에 이르렀는데,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추진(趨進)하고 읍손(揖遜)하는 성대함을 보고서는 탄식하면서 ‘삼대의 우의가 모두 여기에 있구나.’라고 했다.[明道先生嘗至禪寺, 方飯, 見趨進揖遜之盛, 歎曰, 三代威儀, 盡在是矣]”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일견 표훈사 중들을 보고 그들의 위의(威儀)를 칭송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쇠락한 현 유학에 대한 탄식이 깃들여 있다. 이는 불교에 대한 냉소적인 목소리로도 이어졌다.

나는 길잡이 중에게 “이곳에서 사물을 명명(命名)하는 것이 하나하나 일반적 인 것과 다르니, 전해오는 무슨 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길잡이 중은 “사람의 선악(善惡)을 이 암석에 비취보는 것은 곱고 추한 사물을 밝은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선악을 비취보고 선(善)한 사람은 극락문(極樂門)으로 보내고 악(惡)한 사람은 지옥문(地獄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비록 허황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권계(勸戒)의 방법

20) 권4 「동정록」 5월 9일 “少憩表訓寺, 僧徒七八人, 皆白納緇衣, 項百八手念珠, 言笑不苟, 動止閑雅. 伊川先生嘗入僧寺曰, 三代威儀, 盡在此席. 余於此寺, 益嘆吾儒規模解弛, 反不如彼徒之有威儀可觀也.”

21) 「동정록」에서는 ‘이천선생(伊川先生)’이라 했는데, 『이정외서(二程外書)』에서는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명도(明道)’는 이천(伊川) 정이(程頤)의 형인 정호(程顥)이다. ‘정호’를 ‘정이’로 착각한 듯하다.

이 되는 데에 또한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sup>22)</sup>

명경대(明鏡臺)를 유람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지옥문과 극락문, 지장봉(地藏峰), 황천강(黃泉江) 등의 명명과 관련해 길잡이 중과 주고받은 대화이다. 지옥문, 극락문, 지장봉, 황천강은 모두 불교적 사유에 기반을 둔 명명이다. 이에 김정희는 이렇게 명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고 길잡이 중은 사람의 선악을 명경대에 비추어 그 선악에 따라 극락문과 지옥문으로 간다고 대답했다. 중의 이러한 언급은 철저하게 불교적 사유에 기반한 것이다. 김정희는 길잡이 중의 이러한 설명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는 데는 일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불가의 속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유학자의 본분에서 비롯되었다.

김정희는 금강산 유람을 유가적 사유를 체험하고 현 유가의 모습을 반추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공자와 맹자, 주희, 정호의 언급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언급을 마주한 현실과 결부시켰다. 이러한 인식이 기저에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유가의 쇠락함을 상기시키는 곳에서는 탄식을 자아냈고 불가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인 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대부분의 금강산 유기는 유자들의 저작으로, 유자적 측면에서 금강산을 바라본 것이다 보니 곳곳에 유가적 사유가 투영되어 있다.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유가적 사유를 현실에서 체험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불가에 대한 다소 냉소적인 언급도 산견된다. 일반적 유자의 기록과 김정희의 「동정록」도 대동소이하여, 김정희만의 특징이라 할 순 없다. 이는 금강산 유기를 쓴 기존 유자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은 것이기에, 전통이자 한계가 된다.

### 3.3.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장

금강산과 관련된 수많은 유기가 존재하지만, 시대의 추이에 따라 금

22) 권4 「동정록」 5월 9일 “余謂指路僧曰，此處命物，種種殊常，其或有說歟。僧曰，人之善惡，照於此巖，如物之妍醜，照於明鏡。其善者送于極樂門，惡者入于地獄門云。其說雖似荒誕，而於世人勸戒之道，亦不爲無助。”

강산의 표상은 일정 정도 변화했다. 김정희 역시 일제치하라는 아픔 속에서 유람이었기에 「동정록」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담겼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의 표상도 다른 유기와 달리했다.

열흘 동안 산에 들어갔다가	十日入山屐
강가에서 우연히 한 번 읊조리네.	江頭偶一吟
옛 궁궐은 방초에 묻혀 있고	故宮芳草沒
허물어진 성곽은 저녁 안개가 뒤덮었네.	殘郭暮烟沈
몇 번이나 신선의 꿈을 꾸었나	幾度神仙夢
절로 인지의 마음에 부끄럽구나.	自慙仁智心
한성에는 알던 친구들이 많아	城中多舊識
술 가지고 밤에 방문 한다네.	携酒夜相尋

권1에 실린 「過往十里驛，暮渡漢江橋。」라는 작품으로,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다시 한성에 돌아와 지은 작품이다. 1,2구는 금강산 유람의 과정을 회억한 것이며, 3,4구에서는 흥겨웠던 유람의 끝에 한성을 지나면서 고궁을 마주한 정회를 서술했다. 두보(杜甫)는 「춘망(春望)」이라는 작품의 1,2구에서 “나라는 망했어도 산하는 남아, 봄날 성엔 잡초만이 우거졌구나.[國破山河在，城春草木深.]”라고 하면서 망한 나라에 대한 서글픔을 드러낸 바 있다. 김정희의 구절은 두보의 구절과 의미상 겹친다. 그러한 상심은 5,6구로도 연결되었다. 6구의 ‘인지심(仁智心)’은 『논어』 「옹야(雍也)」의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知者樂水，仁者樂山.]”라는 구절의 ‘인지’를 말한다. 결국 나라가 일제에 강탈당한 현실을 잊은 채, 젊은 시절 열망이었던 금강산과 동해를 맘껏 유람하기만 했다는 부끄러움에서 나온 탄식이다.

동해 물 앞에서는 물이 되기 어렵고	東海水前難爲水
금강산 본 뒤로는 다시 산이 없다오.	金剛山後更無山
청산 너머로 옥 같은 부용 흩어져 있고	玉芙蓉散出青山外
만 리 길에 거울 같은 물길 흘렀지.	鏡浪平流萬里間

한대의 의관은 이로부터 옛 것 되었으니	韓代衣冠從此舊
신선 세계의 일월은 누굴 위해 한가롭나.	仙區日月爲誰閑
풍진세상에서 10년 동안 근심스런 길손	風塵十載悠悠客
다행이 기이한 인연으로 한 번 밟고 돌아가노라.	幸借奇緣一蹶還

권1에 실린 「朝發外金剛」이라는 작품이다. 금강산과 동해까지 다 돌아본 후, 한성으로 오기 위해 외금강을 출발하며 지은 것이다. 1,2구는 『맹자』 「진심 상(盡心上)」의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기시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웬만한 물은 물로 여겨지기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배운 자에게는 웬만한 말은 말로 여겨지기 어렵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라는 구절을 활용하여, 금강산과 동해의 유람에 대한 절정의 흥취를 드러냈다.

그러나 5구에서는 다시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첨예하게 묘사했다. 우선 ‘한대의관(韓代衣冠)’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대의관(漢代衣冠)’이라는 표현을 염두 해 둔 것으로 보인다. 한대의관(漢代衣冠)은 ‘한관위의(漢官威儀)’란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한나라 조정 관원들의 복식과 전례(典禮) 및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하여 변성한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sup>23)</sup> 여기에서는 ‘한(漢)’은 ‘한(韓)’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한(韓)’은 대한제국을 가리킨다. 결국 대한제국이 일제에 망한 상황을 외돌려 표현한 것이다.

앞서 살핀 「동정록」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글에서도 당대 현실에 대해 ‘촉도(蜀道)’라고 했는데, 동일한 맥락에서의 언급이다. 실제 유람하는 과정에서는 유람의 흥취에 빠져 있어, 그 감회만을 서술했는데, 막상 유람이 끝나는 시점에서 당대 현실이 새삼 겹치면서 비애감에 젖어

23)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 상(光武帝紀上)」에 “신망(新莽) 말년에 유수(劉秀) 즉 광무제(光武帝)가 회양왕(淮陽王) 유현(劉玄)에 의해 사례교위(司隸校尉)에 발탁되었을 때, 그동안 왕망(王莽)에 의해 폐기된 한나라의 복식 등 옛 제도를 모두 복구시키자, 사례(司隸)와 요속(僚屬)들이 보고는 모두들 기쁨을 금치 못했으며, 늙은 아전들은 혹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오늘날에 다시 한나라 관리의 위의를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不圖今日復見漢官威儀.]”라고 한 고사가 전한다.

든 것으로 보인다.

아, 하늘과 땅이 비록 크고 옛날과 지금이 비록 쌓여 있지만, 칠 척도 되지 않은 육신으로 하루의 편안함도 얻기가 어렵구나. 양(陽)과 양(襄)은 바다로 들어갔고 노중련(魯仲連)은 동해를 밟겠다고 했으니, 바람은 서늘하여 근심을 불러 일으키고 구름은 아득하여 한스러움을 띠고 있다. 옛날을 애도하고 지금을 아파하는데, 다만 흰 새 한 쌍이 있어 절로 날아갔다 또 날아왔다.<sup>24)</sup>

5월 11일 해금강의 유람을 마치고서 자신의 감회를 기록한 부분이다. 드넓은 천지와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하루가 결코 편하지 못하다고 탄식하면서 양(陽)과 양(襄) 및 노중련(魯仲連)을 언급했다. ‘양(陽)과 양(襄)’은 악관(樂官)으로 『논어』 「미자(微子)」에 보이는데, 노(魯)나라가 쇠하고 예악이 붕괴되자, 섬으로 들어가 은거했던 인물이다.<sup>25)</sup> 또한 노중련은 전국(戰國) 시대 제(齊)나라의 고사(高士)로, 진(秦)나라 군대가邯鄲(邯鄲)을 포위하고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길 것을 요청하자,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참칭(僭稱)한다면 나는 동해를 밟고 빠져 죽겠다.”라고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충절의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받았다.

김정희는 동해의 해금강 유람을 마치는 시점에서, 양과 양 및 노중련을 소환했고 그들이 언급한 바다를 동해로 치환하면서, 혼란스러운 당대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을 유람하는 과정에서도 노중련에 대한 언급은 재차 이루어졌다.<sup>26)</sup> 이를 통해 일제를 천자로 참칭하고자 했던 진나라에 던지시 견주면서, 노중련의 충정을 추앙했는데, 이는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감의 다름 아니다.

24) 권4 「동정록」 5월 11일 “嗚乎，天地雖大，古今雖積，以未滿之七尺，難得一日之安。陽襄入仲連蹈，風淒淒而喚愁，雲漠漠而帶恨，弔古傷今，只有白鳥一雙，自去又自來。”

25) 『논어』 「미자(微子)」에서 “소사(少師)인 양(陽)과 격경(擊磬)인 양(襄)은 바다로 들어갔다.[少師陽擊磬襄入於海]”라고 했다. 소사(少師)는 악관(樂官)의 보좌관이요, 격경(擊磬)은 경쇠를 치는 악인(樂人)이다.

26) 권1 「秋島感吟」 “東海東頭眼更新，波光山色總精神。魯連去後千秋月，付與尋常遊賞人。”

돌아보건대, 지금 뜻 있는 선비는 동해를 밟지 않으면 서산(西山)에 오른다. 서산의 고사리는 이미 자랐고 동해의 달도 여전히 떠있다. 아니면 혹여 도(道) 있는 군자가 기이함을 품고 옥 같은 재량을 지닌 채 궁벽한 물굽이나 계곡 사이에 자취를 감추거나 그림자를 숨긴 것을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일까. 비록 그렇다면, 이 또한 천명(天命)이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sup>27)</sup>

5월 14일 유람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유람에 대해 총평 한 부분의 일부이다. ‘동해를 밟는다.[蹈東]’는 것은 앞서 언급한 노중련과 관련된 언급이다. ‘서산(西山)에 오른다.[陟西]’는 것은 백이숙제(伯夷叔齊)와 관련된 표현이다. ‘서산’은 수양산(首陽山)으로, 백이숙제는 의리상 주(周)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며, 서산 즉 수양산(首陽山)에 은거하며 고사리를 캐 먹고 살다가 굶주려 죽은 바 있다. 뒤에 이어지는 ‘서산의 고사리는 이미 자랐고 동해의 달도 여전히 떠있다.’는 표현은 어려운 시기에도 은거할 만한 곳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마땅히 은거해야 함을 역설한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은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있을 테지만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위로 아닌 위안으로 글을 맺었다.

산수 유람을 마친 시점에서 노중련과 백이숙제를 소환했다. 이는 축도와도 같은 현실, 즉 일제치하라는 상황과 연관 지어 보면, 금강산을 백이숙제의 수양산에, 동해를 노중련이 언급한 동해로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금강산과 동해는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가는 시점에서 당대 현실을 더 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김정회에게 있어 금강산은 단순히 신선의 세계와 유가적 사유를 체험할 수 있는 창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당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금강산 또한 일제치하라는 당대 현실의 대척점에 있지만, 여전히 현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기에, 이전 시기의 금강산과는 그 표상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27) 권4 「동정록」 5월 14일 “顧今有志之士，不蹈東則陟西，西山之薇已長，東海之月尚存，抑或有道君子，懷奇抱玉，潛跡滅影於窮灣絕壑之間，而吾未之見耶。雖然，此亦天也，非人力之可致。”

## 4. 나가는 말

김정희는 일제치하였던 1941년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발하여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바 있다. 총 9일 간의 여정이었는데, 관련 기록은 그의 문집인 『연연당문고』에 실려 있다. 권1에 실린 총 24수의 한시 작품과 권4에 실린 「동정록」이 바로 금강산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김정희가 실제 「동정록」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풍경을 언급한 대목이나 각 풍경점에서 자신의 감흥을 기록한 부분에서 그 영향 관계를 어렵지 않게 살필 수 있었다.

금강산을 유람했던 이들은 유자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금강산 유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소 익혔던 유학을 실제 공간에서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다. 김정희 역시 공자나 맹자, 주희와 정호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면서, 자신의 체험을 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

김정희의 생애나 변시연의 「묘갈명」<sup>28)</sup>을 통해 김정희의 당대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데, 유학자로서 당대 나라의 상황에 탄식하면서 일제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동정록」에도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유람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은 한시나 「동정록」에서는 망국의 한을 드러내면서 비애감에 젖기도 했다.

또한 나라가 쇠하고 예악이 붕괴되자 바다로 들어갔던 악관(樂官) 양(陽)과 양(襄) 및 천자로 참칭하려 하자 이를 강하게 거부했던 노중련, 그리고 절조를 지키며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숙제를 소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동해는 악관 양과 양 및 노중련과 관련된 공간으로 치환되었고 금강산 또한 백이숙제의 수양산으로 이어졌다.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금강산의 표상을 이전 시기와 달리한 것이다.

본고는 김정희의 금강산 유람 관련 한시 작품이나 「동정록」에만 집

28) 邊時淵, 「墓碣銘」(『연연당문고』 부록) “早抱雄志, 博學無方. 才何未施, 時異道傷. 不見倭伯, 昌言其亡. 山河雖復, 南北分疆. 既明且哲, 篤守梓鄉. 笑傲乾坤, 風月自適. 斐煥文章, 勁健筆力. 當世通儒, 後人柯則. 敢將蕪辭, 昭揭貞石.”

중하다보니, 금강산 유기의 공시적 혹은 통시적 접근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는 논자의 한계임을 밝히며, 금강산 유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접근을 통해 차츰 채워나갈 것이다.

[Abstract]

## The Study on the Tour of Mt. Geumgang by Kim Jeong-Hoe\*

Park, Chonghoon(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cords related to Kim Jeong-hoe(金正會)'s tour of Mt. Geumgang. Kim Jeong-hoe toured Mt. Geumgang in 1941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During his tour of Mt. Geumgan, he wrote a total of 24 Chinese poems and a total of 4,078 letters called 「Dongjeongrok(東征錄)」。 He departed from his hometown of Gochang(高敞), Jeollabuk-do(全羅北道), passed through Hanyang(漢陽), toured Mt. Geumgang and the East Sea,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His trip took a total of nine days.

The first thing that was noted in Kim Jung-hoe's 「Dongjeongrok」 is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to Kim Chang-hyeop(金昌協)'s record, 「dongyugi(東遊記)」。 In terms of the description of the landscape or the description of the feeling, there are many overlapping parts with Kim Chang-hyeop's 「dongyugi」. Kim Jung-hoe actively used Kim Chang-hyeop's work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his cruise records.

Kim Jung-hoe used the tour to Geumgangs Mountain a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Confucian teachings he usually learned. During the cruise, he remembered what Kongzi(孔子), Mengzi(孟子), Zhuxi(朱熹) and Chenghao(程顥) said, linking them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sun University 2023.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y faced each other. Through this, it was used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Confucian teachings. This is the same as the tendency of ordinary Confucian scholars during the Joseon Dynasty to travel to Mt. Geumgang.

For Kim Jung-hoe, the tour of Mt. Geumgang was also a space that made him aware of the reality of the time. Through repeated references to the reality of the time under Japanese occupation, he expressed his sadness of losing the country and actively expressed his antipathy toward Japanese imperialism. He described his feelings by summoning various people who showed loyalty in the loss of their country. This stems from the acute perception of the reality of the time, which led to a change in the representation of Mt. Geumgang.

**Key words :** Bojeong보정(普亭) Kim Jeong-Hoe(金正會), Yeonyeondangmungo (淵淵堂文稿), Dongjeongrok(東征錄), A tour of Mt. Geumgang, The representation of Mt. Geumgang, Travel recor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Kim Chang-hyeop(金昌協)'s Dongyugi (東遊記).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정희(金正會), 『연연당문고(淵淵堂文稿)』, 회상사(回想社), 1978.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권.  
박종훈 역, 『천하제일명산 금강산 유람기-영악록(瀛嶽錄)』, 수유화개, 2021.

###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혜선, 「17·8세기 金剛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집, 관악어문연구, 1992.  
김혈조, 「문학을 통해 본 금강산」, 『한문학보』 1권, 우리한문학회, 1999, 393-394면.  
박은정, 「遊山記로 보는 僧의 삶과 소수자적 실상-금강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54권, 온지학회, 2018.  
박종훈, 「수원박물관 소장 금강록 일고찰」, 『한국언어문화』 5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박종훈, 「后山 鄭胤永의 『瀛嶽錄』 一考察」, 『온지논총』 67집, 온지학회, 2021, 121-124면.  
박종훈, 「일제 강점기 華東 金漢翼의 금강산 유람」, 『국제언어문학』 51호, 국제언어문학회, 2022, 124-130면.  
심경호, 「조선후기 문인의 동류 체험과 한시」, 『한국한시연구』 6권, 한국한시학회, 1998, 55면.  
육재용, 「산수유람록에 나타난 先人들의 관광의식」, 『관광연구』 25권,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윤재환, 「梅山과 玉洞의 금강산 기행시문 비교 연구」, 『동양학』 38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105-106면.  
이경수, 「16세기 금강산 기행문의 작자와 저술배경」, 『국문학연구』 4권, 국문학회, 2000.  
이종묵, 「조선 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6권, 한국한시학회, 1998.